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2월 16일(주일) 제1282호

코로나19,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방합시다

성도들을 위한 예배지침, 교회 소독 실시, 손소독제 비치
개강예배, 순장영성수련회 취소, 순예배 및 아이스쿨 연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이 계속 이어진다.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성도들의 불안 종식과 안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난 2월 2일(주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지침을 발표하고 철저히 지키고 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했거나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성도들은 교회 예배당 출입을 자제하고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를 활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한 모든 성도는 예배당에 들어설 때 손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원하는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도 좋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났을 때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당분간 성찬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온누리선교재단은 지난 2월 1일, 7일, 14일 교회 전체 소독을 실시했다. 2월 21일과 28일에도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회 곳곳에 손소독제도 비치했다. 각 캠퍼스 예배당 입구(주일예배, 차세대, 대학청년부, 국제부 등), 목회행정실, 교회 로비, 식당 출입구 등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다.

성도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예배시간을 피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주일 2, 3부예배, 도곡교육

관 1, 2부 예배는 가급적 피하고, 서빙고 1부 예배, 양재 1부 예배와 4부 예배, 도곡교육관 3부 예배 참석을 권하고 있다.

목회 행사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공동체 개강예배와 순장영성수련회를 취소했다. 아이스쿨공동체 필수과목과 순예배 개강도 4월 이후로 연기됐다. 아이스쿨 사역팀 선택과목은 사역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차세대사역본부는 2월 한 달 동안 캠퍼스별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2020년 차세대 패션 캠프'를 잠정 연기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년 철야 기도회

'Ignite'

28일 22시 ~ 29일 5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년들의 기도행전이 시작된다. 오는 28일(금) 저녁 10시부터 29일(토) 오전 5시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년 철야 기도회, Ignite'가 막 오른다.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년 철야 기도회 'Ignite'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통일, 외교, 교회,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한다.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본부장)가 인도한다. 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재훈 담임목사(정치, 경제를 위한 기도회), 밤 11시 50분부터 새벽 1시 20분까지 박종길 목사(사회, 문화를 위한 기도회), 새벽 1시 40분부터 3시 10분까지 이상준 목사(국방, 통일, 외교를 위한 기도회),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 김승수 목사(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한다.

한편 홀리스타(대학청년부 새벽예배)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새벽기도회를 연다. 2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대학청년부 모든 홀리스타에서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통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한다.

김승수 목사는 "나라 안팎으로 위기와 혼란이 가득한 이때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예배 유튜브 시청안내

요한복음 12:20-36(2월 18일 본문)

본문 주제: 열매(밀알 신앙을 소유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권세와 생명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영상 제목: 시기심으로부터의 자유
- 이재훈 목사

내용: 시기심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실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삶은 은혜로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감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질문: 나의 믿음은 예수님 닮은 건강한 인격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https://youtu.be/nhscEvAU-2c>



CGNTV SOON
유튜브에서 'CGNTV SOON'을 검색하세요

이 사역 한번 해보세요!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밥은 먹었니?”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던 시절 인사말이다. 그만큼 굶주리고, 헐벗고, 밤이슬 피할 방 한 칸 없던 사람들이 많았다. 요즘에는 배고고, 헐벗고, 방 한 칸 없는 이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못 먹고, 못 입고, 자기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이웃들이 있다.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일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해보자.



강동 온누리교회 반찬사역(위)과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아래).

요즘은 노숙자들도 따뜻한 밥 한 끼는 먹는다고 하는데 진짜 밥 굶는 사람들이 있다고 묻는 이들이 있다. 진짜 있다. 지난해 8월 탈북민 모자(母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생활고로 인한 아사(餓死)가 그 원인으로 추정됐다. 탈북민 모자가 살던 냉장고에 고춧가루 외에 먹을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 탈북민 모자에게 쌀 한 봉지라도 건네는 이웃이 있었다면 그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사건을 발생시키는데 한 몫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최근 한국 사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멀리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타인과 대면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이웃에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되면 고립되고, 도움을 호소할 곳이 전혀 없어서 비극적인 현실과 마주할 이웃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교회가 나서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고, 돌보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이

미 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합시다!

노인들을 위한 고령식을 생산하는 기업 ‘사랑과 선행’에서는 어르신들의 끼니와 건강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주기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 업체 한 배달원이 치매 어르신이 집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재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치매 어르신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훈훈한 미담이 분명하지만, 이웃의 끼니와 건강을 살피는 일이 값을 지불하는 상품이 되었다는 게 씁쓸하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사라진 게 느껴진다.

이미 교회에서는 이웃들을 찾아가 식사를 제공하고 교제하는 사역을 많이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역이기 때문에 더 많아져야 한다. 양재 온누리교회 쪽방촌사역팀에서는

매주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교제하고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웃사랑사역팀은 차세대 파워웨이브 학생들과 함께 서빙고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서빙고동, 청과동, 보광동에 거주 중인 이웃 47가구를 매월 한 번씩 찾아가고 있다.

박승식 팀장(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은 “소외된 이웃들과 교제하는 사역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역”이라며 “반겨주시고 기다리는 이웃들이 정말 많다”고 말했다.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들이 정말 많다. 가출 청소년, 탈북민, 노숙인 등 그 대상도 다양하다. 문제는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보다 소외된 이웃들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사회선교부에서 ‘1다락방 1사역’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직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각 공동체 혹은 순마다 지역 사회(주민센터, 구청, 복지센터 등)와 연합해서 소외된 이웃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살피는 사역을 시작해보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만나고, 그들과 교제한다면 지역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일이 분명하다.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내 가족을 먹인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서 이웃들을 찾아가면 된다. 그 다음은 위로와 격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제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사회선교부나 주민센터, 구청 등의 기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소외된 이웃들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유명 가수 인순이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고등학교 졸업율이 28%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2010년 강원도 홍천에 있는 폐교를 매입해서 기숙형 대안학교 ‘해밀학교’를 설립했다. 본인도 다문화가정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공교육이 잘된 시대에 교육격차가 어디 있겠나 싶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은 더 어렵다. 언어와 문화차이라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부모들이 숙제를 봐줘야 하는데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한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숙제를 봐줄 수

없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다보면 자연스럽게 공부에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다. 2018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중단율이 1.03%이다. 그 중에서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이 1.34%로 가장 높았다. 일반가정의 중학교 학업중단율이 0.73%인데 두 배 가량 높다. 취학률에서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일반가정 학생들에 비해 취학률이 중학교 28%, 고등학교 36%, 고등교육 14.5% 낮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난이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다. 전국 9세부터 24세 다문화가정 자녀가 9만5천여 명인데 수도권에만 42%(약 5만여 명)가 생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은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이다.

국내출생은 국제결혼한 부부가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다. 중도입국은 국제결혼한 부부가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한국에 입국시킨 경우다. 외국인가정은 외국인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다. 세 유형 중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도입국 학생들과 외국인가정 학생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이 62.1%, 외국인가정 학생이 73.1%다.

당장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공부방이나 방과 후 교실을 시작하면 좋는데 부담이다.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서 돕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온누리M미션이 준비 중인 평택, 남양주, 김포, 포천에 다문화대안교실 OGA(Onnuri Global Academy)를 섬기는 것도 좋다. 다문화가정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이나 가정사역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일대일로 지도를 해 줄 봉사자가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신앙의 선배들은 소외된 이웃들의 보살피는데 아낌이 없었다. 종순일은 마을 주민들의 빛을 탐강해줬고, 장기려 박사는 병원비가 없는 아픈 이웃들을 위해서 청십자의료보험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가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이웃들을 보살피는 사역을 시작하자.

/ 김영선 기자 k4458@onnur.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온전한 소원

열왕기상 3:4~15

“오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소원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소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삶을 변질시키는 소원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이루실 때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소원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 자신이 만든 소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소원은 자유의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유의지는 스스로 소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이유가 이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삶은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형성되고, 그 소원이 열매 맺어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자신의 소원을 계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소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뜻이 나의 소원인지를 민감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온전한 소원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왕상 3:4~5).

솔로몬이 드린 1천 번제단 1,000마리 짐승을 제물로 드린 국가적 번제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1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한 번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않으려 했고, 보지 않으려 했고, 나의 생

각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처럼 꿈으로도 찾아오시지만 예기치 않은 만남과 사건,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와 질병, 재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소원을 잃어버린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하신 예수님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되새겨 봄으로써 우리의 자유의지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동기부여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품었던 소원조차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소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고 구하지만,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가득한 많은 소원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소원인지를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원을 구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솔로몬이 응답하는 모습은 적어도 이때만큼은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생생하게 들려주시며, 그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솔로몬의 응답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마 6:33)라는 말씀 그대로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소원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오직’이라는 단어가 덧붙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뿐만 아니라 ‘오직’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소원입니다.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총에 대한 감사

첫째, 솔로몬이 소원을 구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은총’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응답할 때 자신의 소원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6절).

6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큰 은총’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우리 말로는 은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내, 은혜,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단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의미가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 성실한 사랑,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할지라도 버리지 않는 사랑, 구약 호세아서에서 음란한 아내가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도 버리지 않는 호세아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영어로는 더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NIV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unfailing love)이라고 하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견고한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steadfast love)라고 합니다. 신실한 사랑, 성실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동기, 자신의 소원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신 헤세드가 나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는 동기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소원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라고 하신 것은 모든 소원과 기도의 밑바닥에 흐르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함께 하

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신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은총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헌신과 기도와 피 땀 흘린 헌신으로 받은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고, 믿음의 조상들이 새벽마다, 철야하며,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일구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 소원은 매우 위험한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자녀라면 결코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은총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소원이 되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겸손은 인정하는 것

둘째, 솔로몬이 소원을 구하는 태도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판단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7절).

솔로몬은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했고, 나이가 어리다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라 젊은 나이입니다. 왕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경험과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상황을 상황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정반대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자기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과 야망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원이 교만을 만나면 욕망이 됩니다. 그러나 소원이 겸손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12면에 계속》

기획 거듭나는 크리스천들을 위하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가 뭘까?

가인, 사울 왕, 열두 제자들조차 사로잡혔던 시기, 질투
시기와 질투를 버려라 ...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일

벌써 입춘(立春)이 지났다. 새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새해 작성했던 수많은 계획들을 다시금 점검해 볼 때다. 본지에서는 ‘거듭나는 크리스천들을 위하여’를 주제로 우리가 꼭 버려야 할 감정과 습성을 알리고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이다. 그 첫 번째 제안은 ‘시기와 질투를 버리는 훈련’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습성 혹은 감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남이 잘 되는 꼴을 두고 못 보는 것이 죄 많은 인간의 본성이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한다’는 뜻이고,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는 감정’을 의미한다.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두고 못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기와 질투, 그 모진 역사

인류가 생긴 이래부터 현재까지 시기와 질투의 모진 역사는 계속 이어졌다. 참으로 길고도 질기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벨과 가인’ 사건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자 동족살인의 비극인 아벨과 가인 사건의 원인이 바로 시기와 질투였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창 4:3-8).

사울은 질투의 화신이었다. 다윗을 질투한 그는 영혼까지 피폐해져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 그런 사울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변하게 된 바탕에도 시기와 질투가 숨어 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18:7).

다윗이 블레셋을 쓰러뜨리고 개신장군이 되어 돌아왔을 때 여자들이 나와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사울이 이 말에 심히 노했고, 그때부터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삼상 18:8-9).

한글성경에는 단순히 ‘주목하였다’고만 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는 “사울이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주목했다(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고 기록되어 있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처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했고, 그 감정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일생을 끝마치게 된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조차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가거늘”(마 20:20-24).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를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열 명의 제자들이 분개했다. 열두 제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었기에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들은 나사렛 시골 사람 목수의 아들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펼치며, 그로 인해 군중들로부터 인기가 커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심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해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마 27:18).

결국 그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만다.

시기와 질투 버리는 세 가지 훈련

시기와 질투는 남을 해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해하는 아주 무서운 감정이자 습성이다. 그 누구도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다. 우리 아들은 대학입시에 실패했는데, 모 권사님 아들은 좋은 대학에 적하니 불으면 씁쓸하고 마음이 괴로워지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시기와 질투에서 정녕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무서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벗어날 수 있다. 시기와 질투를 버리는 훈련이 그 방법이다. 시기와 질투를 버리는 세 가지 훈련을 소개한다.

첫째, 비교의식을 버려야 한다. 시기와 질투는 나보다 나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비참한 감정이 들 때 싹튼다. 재미있는 사실은 시기와 질투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거지는 거지를 시기 질투하고, 시인은 시인을 시기 질투한다”는 말이 있다. 생판 모르

는 사람이 땅을 산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점이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 자체를 지양해야 한다.

둘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잘 되는 친구, 동료, 지인들을 보고 ‘왜 나는 안 될까’ 혹은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비참해질 필요가 없다.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 등 세계적인 성악가처럼 노래를 잘해야만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찬양을 사모하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찬양할 수 있다. 최고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자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셋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경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약 3:14-17).

야고보 사도는 시기와 질투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질투심을 버리려면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이를 토대로 살아야 한다. 항상 말씀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다. 말씀에 빚대어 마귀를 대적하고 또 대적해야 한다. 그래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시기와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결국 답은 하나다.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잠 23:17-18).

전문가 기고

“그들을 축복하라!”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는 방법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앙공동체,
칼럼니스트,
기업체 대표)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는 1898년 12월 7일 모스크바 초연 이후 지금까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살리에

리가 모차르트의 재능을 시기해 독살했다는 줄거리이다. 직접 대본을 쓴 작곡자 립스 키코르사코프는 이 오페라에 모차르트의 ‘진혼곡(Requiem)’과 ‘돈 조반니’의 음악을 삽입해서 더 애절한 감성을 자아낸다.

18세기 말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했던 살리에리는 작곡가로서 높은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예술에 더욱 헌신했다. 하지만 남모르게 모차르트를 질투하면서 가슴앓이를 했다. 자신은 언제나 혼신을 다해 작품을 발표하는데, 사람들이 빈둥거리면서 만든 모차르트의 작품을 천상의 음악이라고 찬사할 때마다 신은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했다. 모차르트는 어린 아들의 천재성을 발견한 궁정악사 아버지로부터 4살 때부터 음악수업을 받았다. 5살 때 이미 작곡을 했는데 24년 동안 완전한 교향곡 68곡을 작곡했다. 살리에리는 하루 속히 모차르트라는 존재가 사라져야 자신이 돋보인다고 생각했다. 결국 저녁식사에 모차르트를 초대해 은밀히 포도주에 독약을 탔다. 희곡 속에서의 스토리는 살리에리가 평생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기 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 모차르트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살리에리와 라이벌 관계는 공공연하게 전해오는 일화다.

역사의 라이벌은 일상에서도 존재한다. 세계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당대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었는데, 한번은 플로렌스의 대형 홀을 장식할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젊은 천재 무명 화가 미켈란젤로에게도 그림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해 낙담했다. 그 일로 자신의 천재성을 더 이상 살리지 못하고 어둡고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쟁자와 신인들의 출현 앞에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에 생명이나 시기는 빼를 썩게 한다”(잠 14:30).

시기와 질투가 만든 비극

시기와 질투는 창조 이래 인간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죄성이다. 자신과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수많은 비극의 단초가 되어왔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 속담이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줄 일이 다. 그 땅의 시세가 오르면 나도 좋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고, 잘 사는 형제나 친척이 많으면 도와줘야 하는 부담도 줄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앓이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시기와 질투는 대개 경쟁관계에서 비롯된다. 타고난 조건, 환경, 경제력, 외모, 능력,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열등감과 원망은 욕심과 증오의 죄를 잉태한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시기로 인해 형제간 살인이라는 비극이 들어온다.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동생에 대한

자 한다(삼상 18:7-8).

바벨론의 방백들은 탁월한 다니엘을 시기해 죽이고자 했으며(단 6:3-4),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심으로 비방하고 핍박했다(행 13:45, 17:5).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들의 행적을 듣고 헤롯은 두 살 아래 사내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참담한 비극을 연출한다(마 2:16). 예수님 공생애 동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소한다(막 15:9-10).

“시기를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라”(벧전 2:1-2).

시기와 질투는 국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1400년 전 북방의 호랑이 고구려는 강대국인 수나라, 당나라와 수십 차례에 걸쳐 전



라이벌이었던 모차르트(좌)와 살리에르(우).

분노로 바뀌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가인의 살인행위에서 시기심이 주는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다(창 4:3-4).

친형제지간에도 이러한진대, 일부일처가 아닌 역기능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이 먼저 잉태해 자기를 멸시하자 이를 시기하여 하갈을 학대하므로 하갈이 결국 도망하게 된다(창 6:4-6).

야곱의 처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므로 여종들을 야곱과 동침하게 만든다(창 30:1-15).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그들보다 사랑함을 알고 시기하여 이복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다(창 37:4-11).

다음세대 지도자를 세우야 하는 사회와 조직에서의 시기과 질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겨내기 어려운 유혹이다. 사울은 자신 곁에서 음악을 연주해주고,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다윗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하는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시기해서 죽이고

쟁을 치르면서도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신화 같은 전쟁사를 썼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한 수나라가 전쟁후유증으로 몰락해버릴 정도였다. 수나라 이후 건국된 당나라 역시 그 원수를 갚고자 수십만 대군을 앞세워 고구려를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 중심에는 연개소문 장군이라는 걸출한 리더십이 있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난공불락 고구려가 힘없이 무너진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 연개소문의 장남이 정권독식을 위해 두 동생을 몰아내고자 적국인 당나라를 찾아가 군사를 구걸했고, 결국 내분으로 중심을 잃은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한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지형이 바뀌게 된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약 3:16).

간혹 남녀 간 에로스적인 사랑에 몰두하다가 상대가 변심하면 치정으로 인해 상대방 가정을 파괴하거나 잔인한 살인과 복수극으로 치닫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다. 세의

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의 내용은 이아고의 모함에 속아 의처증을 갖게 된 주인공 오셀로가 질투의 노예가 되어 지극히 사랑하는 아내 데스데모나를 목 졸라 숨지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시기과 질투는 그 대상 외에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아가 폐적 사랑에 기반을 두지 않은 남녀 간의 사랑은 순식간에 조절 불가한 애증으로 바뀔 수 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했다. <질투의 임상학>을 저술한 화이트 박사는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헤어졌다고 발표했다. 질투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기지 않는 게 특징이다.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관계에서 생겨난 질투의 불꽃은 견잡을 수 없이 타오르게 되어 상대와 자신을 태우고 주변을 태우게 된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야 8:6).

매일 마음을 기경하는 그리스도인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목사 세 분이 계셨다. 그리스도교회 마이어 목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은 침례교회 스펜전 목사, 웨스트민스터교회 캠퐄 물간 목사다. 물간 목사가 잠시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을 때 마이어 목사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

“물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그분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같은 지역에서 일하게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마이어 목사는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기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시기과 질투가 없어지지 않았다. 괴로워하는 마이어 목사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나님, 물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영혼들이 가득 차도록 해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결국 이 세 분은 아름답게 사역했고, 세 교회 모두 성장했다. 마음의 눈발을 개간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말이 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매일 마음을 기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인생 끝자락에 만난 “나의 예수님”

‘오병이어스쿨’ 이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기적

예수 안 믿는 어르신들에게 이보다 좋은 전도방법이 없다. 사회선교부 ‘오병이어스쿨’ 말이다. 오병이어스쿨은 교회에 구제헌금 받으러 오신 어르신들이 인생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약소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을 뛰어 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물하고 있다. 오병이어스쿨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의 기쁨과 천국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교회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지급하는 구제헌금 천 원을 받으러 교회에 오는 어르신이 1천5백 명이나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구제헌금 천 원이 필요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다. 다른 교회에서도 지급하는 구제헌금을 받으러 여기저기 다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바로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따스한 손길로 붙잡았다. 오병이어스쿨 대표장로 신섭 장로가 그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렷다.

“그 어르신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어르신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 장로는 그 어르신들이 노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했다. 신 장로와 오병이어스쿨 스태프들에게는 그 어르신들이 전도대상 1순위가기 때문이다.

“구제헌금 받으러 교회 오시는 어르신들이 1천5백 명이 넘는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어르신들이야말로 온누리교회가 품어야 할 전도대상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신 장로와 오병이어스쿨 스태프들은 구제헌금을 받으러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섬기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수소문했



복음을 알지 못하던 어르신들이 오병이어스쿨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지만 좀처럼 쉽지 않았다.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때 사회선교본부가 손을 잡아줬다.

“이기훈 목사님을 비롯한 사회선교부 리더십들에게 구제헌금 받으러 교회 오시는 어르신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회선교본부에서 재정적인 지원부터 장소까지 알아봐주시겠다고 하셔서요. 그렇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바로 오병이어스쿨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반응이 훨씬 좋았다. 오병이어스쿨을 찾은 모든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

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고백했다. 김정운 어르신(78세)은 오병이어스쿨이야말로 예수 안 믿는 모든 노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병이어스쿨에서는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노인들에게 이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문원태 어르신(83세)은 오병이어스쿨 스태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오병이어스쿨에 참여하면서 천국과 지옥

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려준 오병이어스쿨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스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어르신들을 오병이어스쿨까지 모셔오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끝까지 섬기는 성도들 덕분에 희망이 있다.

이영자 성도(오병이어스쿨 스태프, 82세)는 그 어르신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고령에 불편한 몸이지만 오병이어스쿨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

“주변에 외롭고 소외된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에게 예수 만날 수 있는 오병이어스쿨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기 오병이어스쿨 참석자 32명 중에서 23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19명이 세례를 신청했다. 오병이어스쿨 2기는 125명, 3기는 159명, 4기는 81명이 참석했다. 그 중에서 예수님 영접 167명, 세례 41명, 일대일제자양육 13명이 수료했다. 어르신 35명은 일대일 양육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 어르신들을 섬겨줄 봉사자와 재정적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후원 문의: 010-7636-6305(김종명 팀장)

사역칼럼

새 생명 선물하고, 따뜻한 친구가 되고



신섭 장로
(오병이어스쿨)

오병이어스쿨이 개강했다.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다. 오병이어스쿨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은 예수

를 알지 못한 채 인생 후반기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시는 분들이다. 그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만이 그 어르신들의 여생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풍요로움과 윤택함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노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사는 것을 말한다.

인생의 낙이 없던 어르신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견하고, 본향으

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스쿨은 어르신들이 또래문화와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준다. 어르신들이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신앙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된다. 오병이어스쿨을 통해서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고백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오병이어스쿨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고 있다.

오병이어스쿨은 타 교회에서 오신 한 권사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나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온누리교회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어르신들 대부분이 불신자이고, 온누리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지급하는 구제헌금을 받으러 오고 계신다. 문제는 그 어르신들이 복음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권사님이 그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프로그

램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부터 그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훌륭한 기획안을 주시고, 아름다운 천사들을 보내 주셨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전도폭발팀 제자반, 전도콜센터, 장로중보기도팀, 장로합창단, 창조과학탐사팀, 서빙고 새가족사역팀 등 온누리교회 여러 공동체에서 그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

그 어르신들은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쇠약해지셨지만 그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또한 의지해야 할 대상을 열심히 찾고 계신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여생을 하나님만 더욱 바라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진다면 더없이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 날 따스한 성령

의 봄바람이 고착화되어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고, 또래문화를 만들며, 수많은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열광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본다.

몇 마디 따뜻한 말로는 어르신들을 전도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기 오병이어스쿨에 참석하셨던 한 어르신이 102세 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오병이어스쿨 스태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적이 있다. 오병이어스쿨 스태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작은 봉투를 전해드리면서 따뜻한 말과 기도로 위로를 해드렸다. 그 모습에 감동받은 그 어르신께서 세례도 받으시고 교회에 등록도 하시겠다고 하셨다. 이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만이 어르신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병이어스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나라를 위한 기도모임 ‘말씀과 순명’

온누리교회, 남서울교회, 선한목자교회, 성락성결교회

4월 15일(수) 총선을 앞두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을 시작했다. 이재훈 담임목사, 홍정길 목사(남서울 은혜교회),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등 한국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참석한다.

그 첫 번째 기도회가 지난 12일(수)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목회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홍정길 목사(남서울교회)가 설교했다. 홍 목사는 “목회자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를 위한 기도모임 말씀과 순명은 매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10



나라를 위한 기도모임 ‘말씀과 순명’ 현장.

시까지 양재 온누리교회(2월 19일, 26일), 남서울교회(3월 4일, 11일), 선한목자교회(3월 18일, 25일, 4월 1일), 성락성결교회(4월 8일, 15일)에

서 총선일인 4월 15일까지 이어진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르완다 ECD센터’

신입생 45명 입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실시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망과마을에 설립한 ECD센터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 올해 신입생 45명이 입학했고, 학부모 오리엔테이션도 실시했다.

르완다 응호망과마을 ECD센터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르완다 응호망과마을 ECD센터는 3개 반(90명)을 운영 중이다. 졸업생 156명을 배출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ECD센터를 르완다 전역과 주변 국가에도 보급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서빙고 수요 비전통독 개강

3월 4일 오후 12시 서빙고 콘서트홀

서빙고 수요 비전통독반이 3월 4일(수) 개강한다. 3월 4일부터 16주 동안 오후 1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서빙고 수요 비전통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9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다. 성경을 구석사 관점에서 깊이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실천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송석근 목사(광명공동체)가 인도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9041-5538

하반기(8~12월) 결혼예배 예약

3월 11일(수) 오후 7시 서빙고 한동홀

온누리교회 2020년 하반기(8~12월) 결혼예배 날짜 추첨을 3월 11일(수)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지하 1층)에서 실시한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모두 이날 추첨한다.

결혼예배 예약은 예비신랑신부, 혹은 양가 부모 중 한 사람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어야 가능하다. 결혼예배 날짜 추첨은 예비신랑신부 혹은 양가 부모만 할 수 있다. 친척이나 형제의 대리 예약은 불가하다. 예약금 50만원과 교인확인증명

서를 지참해서 3월 11일(수) 오후 7시까지 참석하면 된다. 오후 7시 이후 입장하는 성도는 모든 순번추첨이 끝난 다음 접수할 수 있다. 순번추첨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순번추첨을 한 다음 그 순번대로 결혼예배 날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미리 희망하는 결혼예배 날짜를 2~3개 정해두는 게 좋다.

문의: 서빙고 02-3215-3179

양재 02-570-750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마더와이즈 ‘회복’ 수강생 모집

마더와이즈 ‘회복’ 서빙고, 양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마더와이즈 ‘회복’은 3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과 양재 도곡교육관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마더와이즈 회복에서는 ‘당신을 택하신 주님’,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주님’, ‘당신을 위로하시는 주님’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회비 5만 원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02-570-7436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참가자 모집

3월 5일~5월 28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화평홀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무릎선교기도학교는 매주 각 지역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선교사역과 삶을 나눈다. ‘세계 선교현황’, ‘

Back to 예루살렘’, ‘아마존 선교사’, ‘유럽 선교사’, ‘불어권 선교사’, ‘중국 단둥’, ‘서부 아프리카’를 주제로 선교사들이 강의한다. 매주 간소한 점심식사가 제공되고, 지역별 중보기도가 이어진다. 회비 3만 원.

문의: 02-570-7277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3기 참가자 모집

3월 4일~4월 1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시온홀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4일(수)부터 4월 1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랑’, ‘자녀

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랑’을 주제로 5주 동안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 또는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 12만 원.

문의: 02-2182-9114

두란노바이블칼리지 3월 세미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성서지리 세미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세미나가 3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8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금호중앙교회(성동구 금호로13길 20)에서 진행된다.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세계 역사에 관심 있는 성도들을 위한 세미나이다. 호서대학교 기독교학부(역사신학) 김동주 교수가 강의한다. 회비는 21만 원.

문의: 02-2078-3456

역사적, 지리적으로 성경을 폭넓게 이해하고 싶은 성도들을 위한 ‘성서지리’ 세미나가 3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12주 동안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기쁨홀에서 개강한다.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 저자 이문범 목사(총신대 외래교수)가 강의한다. 회비는 22만 원.

문의: 02-2078-3275

/ 정현주 기자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9198	고 권	수원 동누리	1139344	이난희	강남C	1139357	이준우	SNS	1139368	이우진	W
1139318	이윤성	웅산	1139346	윤석희	허브	1139358	박은미	SNS	1139373	고명실	송파A
1139331	허 현	강남D	1139347	양지훈	허브	1139359	이승은	SNS	1139391	강지윤	SNS
1139332	김충한	양재	1139348	최소현	허브	1139360	최형선	SNS	1139394	송수자	성동광진
1139336	백경남	인천 미추홀	1139349	유희라	허브	1139361	김다윗	SNS	1139395	이은미	수원 복누리
1139337	이경민	강남B	1139350	최숙현	분당B	1139362	박예은	SNS	1139397	김태현	서초A
1139342	이다혜	여호수아	1139355	김원영	수원 남누리	1139366	안은샘	Harmony			
1139343	전혜원	여호수아	1139356	최혜진	SNS	1139367	김명호	W			

양재 일대일 수료 명단

수료예배 : 양재 2월 16일(주일) 2부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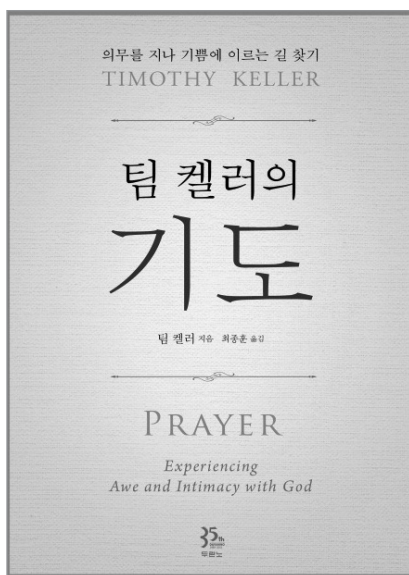
수료대상자는 예배 30분 전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갈렙		김두환	문상권	오승환	심성국	전진희	장우정	권수현	이미종	권슬기	최유식
김수경	변가령	김성주	이남미	윤주영	이주은	정수경	최종숙	김승현	마선일	김성애	노영경
석지원	강진경	김은지	김 희	이기세	노흥규	정수진	오세현	김인성	오근형	김소연	박진아
		김하람	신윤옥	이명은	김민경	최지원	조문주	김지은	최하영	김예지	전지연
■여호수아		김혜리	김희숙	이신영	이은경	최혜진	김선영	이남원	김성수	김찬석	전수진
강보미	박애란	노기현	이명열	이수연	박성은	한수정	백지영	이사랑	김은영	박재형	조형진
강수연	박세이	박미나	김수복	이신영	고은경	한아름	이은숙	정수민	김은경	이혜정	권은경
고현성	박희철	박세인	최미영	이윤희	이태리	한희경	이순주	조용규	임현진	임수민	김지은
권성욱	이병일	박예스터	강은숙	이은영	김명의	허미선	문주현	홍성민	공인원	임수연	최진아
김진희	박희숙	서승희	박찬미	이하영	임예진					조정임	원정림
김동원	김선호	연진모	김용찬	임상재	홍정화	■허브		■J4U			



책 읽어주는 목사

바라는 기도, 올바른 기도



팀 켈러의 기도
팀 켈러 저 | 두란노 | 16,000원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해보고 계획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일상이다. 그 미래가 바로 내일이든, 한참 있다 다가오든 결국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며 계획하고 기도하게 된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계획한대로 정해진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부터 기쁘기는커녕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점이다. 팀 켈러 저서 〈팀 켈러의 기도〉는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팀 켈러도 평소처럼 혹은 예상한대로 일상을 계획하고 기도했다. 기도의 응답처럼 미래가 현실로 도래할 줄 알았다. 그러나 팀 켈러가 맞이한 것은 성경공부와 한 주의 일정을 잘 마쳐서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암진단을 받은 자신과 아내의 병환으로 정신 없는 현실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미래가 현실로 도래했다. 저자는 당시를 “가정에 질게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도와 계획을 갖는

다. 그러나 동시에 그 누구도 미래는커녕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 성경 속 제자들이 그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셨지만, 그들은 설마하며 피곤함에 취침을 했다. 그들이 한 행동은 일상적이었고, 그들이 바라던 취침이었다. 그들 앞에 닥칠 십자가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다. 만약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깨어 기도하며 준비했을 것이다.

저자도 제자들처럼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사람에게 계획하고 정해놓은 미래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평온한 일상에서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저자는 “가장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내가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미래가 아닌 주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미래가 현실로 도래하든 우리는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현실이 우리에게 은혜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도는 자판기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동전을 넣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되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매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은 평온한 일상에서 새로운 선택을 시작한다. 가장 먼저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상해본 적 없는 현실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써 내려갔다.



윤준석 전도사
(열린새신자예배)



Q&A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답: “민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교회까지 데리고 오지 못해서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전도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실패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추수를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복음을 10~15번은 들어야 반응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다고 합니다. 전도와 교회출석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계속 씨를 뿌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열매는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중에 다른 전도자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천의 사명이고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

성경은 형편이나 환경이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관계없이 말씀을 전하라고 엄숙히 명령하고 있다. 운동선수든 경기시즌이든 비시즌이든 쉬지 않고 훈련한다. 농부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어찌나 염려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 반드시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

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며 기다린다. 오늘 심어놓고 내일 당장 땅을 파보고 싹이 나는지 확인하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의 씨를 심었으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막 4:26~27)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언제 그들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열매가 맺힌다. 이 비밀을 모르면 힘들게 전도했는데 그들이 거부하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미룰 때 허탈해지고 낙심하기 쉽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처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든 그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것이 전도인줄 알았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 자랑, 다른 사람의 간증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고 나는 맥이 풀렸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니까 전도가 부담이 되었다. 나에게서는 전도에 대한 은사가 없는 것 같았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어느 날 찬송을 부르다 깜짝 놀랐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것을 간증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바로 주님 앞에 회개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전도는 교회나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곧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농부가 먼저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사실 옛날에 교회에 다녔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다”, “누가 나를 몇 번이나 전도했다” 등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한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전에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뿌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현재 거부하거나 미루는 사람은 아직 씨가 나지 않았을 뿐이다. 또 다른 전도자에 의해서 열매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된다.

전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전도근육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는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꾸준히 전도해야 전도가 두렵지 않고, 전도집회에 초청하기도 쉽다. 전도와 교회출석을 동일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전도를 하다보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전도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며 내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전도 안하는 것이 실패일 뿐이다. 전도자는 실패자가 아니라 전도하지 않는 자가 실패자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전도여왕의 전도 레시피〉저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선택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 일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삶의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등대 같은 책이 한 권 있다. 김형준 목사의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무엇을 선택 하겠습니까?”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 표지에 적힌 질문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고, 그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은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 2장 주제가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예수로!’ 다. 2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삭개오다. 삭개오는 부유한 삶을 누리며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이었다. 삶을 바뀌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눈에 보이는 돈과 사회적 지위가 삭개오를 설명해주는 가지였다. 그랬던 그가 한 사람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삭개오가 만난 사람은 바로 예수다. 예수를 만나고, 구주로 영접한 삭개오는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눅 19:8)고 서원한다. 삶의 주인이 돈과 지위에서 예수로 바뀐 것이다. 지금까지 인생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데 이제부터는 예수가 가장 중요해진 것이다.

저자는 2장 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을 바꿔보세요”라고 권면한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돈과 사회적 지위는 아닌지, 예수님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하지는 않았는지, 내 시간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이다.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세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전부 쏟으세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세요’, ‘오직 말씀으로 결단하세요’ 등 16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들을 소개하고 있다. 각 파트마다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신앙의 선배들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제시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
김형준 저 | 두란노 | 12,000원

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선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가정예배와 성교육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 수하면서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교육이 있다. 바로 ‘성교육’이다. 우리나라는 성(性)에 관한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문화가 있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성교육을 등한시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세상에서 건강하지 않은 성 교육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부모들 또한 친구, 미디어, 개인의 경험 등을 통해 성을 배웠

을 것이다.

자녀들의 성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간혹 자녀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꺼리는 부모들이 있는데 좋지 않은 태도다. 출생 이후부터 65세 이상 노년기까지 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훈육과 조언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체적 성숙보다 정서적 성숙이 늦어지는 현상을 고려하면 청소년기 이전까지는 확실한 성교육이 필수다.

가장 좋은 성교육은 부모가 성역할 모델이

되는 것이다.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성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성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윤리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부모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했다면 일상에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성교육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자녀들과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배우자와 성관계 만족도를 이야기할 만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성교육을 위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부부, 남자, 여자의 역할 등을 주제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경체감과 성역할 등을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다. 두란노서원에서 출판하고 있는 <침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과 한국성과학연구회에서 출판한 <성교육 가이드북 성 사랑 가정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

제목 : 노아의 방주

본문 : 창세기 7장 1절, 8장 18~21절

찬양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메시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흠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친히 대화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고 이를 통해 죄악이 들어와 타락하게 됩니다. 이후 자손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은 이를 보며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구별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서는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알리시며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과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노아의 가족을 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폭풍우가 쏟아질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배를 짓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비도 오지 않는데 배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된 이후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고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노아를 지키셨습니다. 만약 내가 노아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믿고 순종하며 따른 노아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노아의 가정 같은 믿음의 가정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려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에게 언약의 무지개를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노아가 온 맘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드리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이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문영재 목사

찬양 :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오늘(2월 16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YouTube 채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통해 직접 가정예배 Live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유아세례 간증



/ 아이: 곽세연, 부: 곽수철, 모: 전아람

결혼준비부터 모든 것이 순조로웠기 때문에 결혼하면 곧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실망이 점점 커졌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나는 왜 엄마가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괴로웠다. 유아세례가 있는 주일이면 간증을 듣고 세례 받는 아기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결혼 3년차가 되었을 때 고민 끝에 어렵게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에서 난임의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임신이 왜 나에게만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마저 들었다. 그때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가 새롭게 다가왔다. 아이를 갖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인정했을 때 평안이 찾아왔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무렵 처음으로 임신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행복에 태명도 지어서 불러주고 축하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9주를 지나던 어느 날 이상한 느낌이 들어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미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말로만

우리 세연이

듣던 유산이었다. 얼마나 기다리던 아이인데 이렇게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눈물만 흘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 슬픔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오히려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 금방 슬픔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됐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웠다. 아픔으로만 남을 뻔 했던 일을 통해 같은 아픔을 경험한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셨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던 아이에 대한 마음은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어주셨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 임신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자연임신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인공수정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인공수정으로도 임신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연이를 보내주셨다. 내게는 정말 큰 위로이자 하나님의 깊고 세밀하신 만지심이었다. 세연이의 이름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라는 뜻으로 지었다. 이름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드리기를 기도한다.

■ 두란노어머니학교 ‘해피맘’ 수료 간증



/ 채혜원 성도(강화 흥천교회)

나는 딸을 위한 비타민

김포어머니학교 17기를 끝내면서 아쉬움이 있던 차에 두란노어머니학교 심화과정으로 ‘해피맘 2기’를 한다가에 신청했다. 처음에는 남편의 권유로 떠밀리듯 두란노어머니학교를 하게 되었다. 사실 대학생 딸 둘에 중학생 딸, 초등학교 막내들까지 뒷바라지하며 직장생활까지 하다 보니 시간만 나면 혼자 쉬는 게 소원이었다. 시간을 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큰맘 먹지 않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그런데 두란노어머니학교를 끝내면서 받은 감동을 이어갈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피맘을 통해 무엇보다 내가 행복해졌다.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할까. 상황이 좋아진 건 별로 없다. 여전히 우리 셋째는 일주일 이상 학교를 가지 않고, 가더라도 점심때쯤 가서 밥만 먹고 온다. 어쩌다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하면 집을 나가 외박하기 일쑤다. 전에는 나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화도 냈지만 이제는 이 아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견잡을 수 없는 일탈행동에 속수무책으로 기습만 치는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해주셨다. 우리 희서의 소중함을, 그리고

나는 변함없이 그 아이의 엄마임을 말이다.

해피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일탈행동을 하는 아이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나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어느새 내가 심판자가 되어 내 기준에 그릇된 행동을 보면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이 가치를 판단하실 오직 한 분이심을 깨닫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졌다. 또 하나님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모양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아픔과 슬픔, 기쁨과 행복 모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성해 가는데 꼭 필요한 귀한 재료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해피맘 과정은 나에게 비타민이었다. 이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내게 초능력이라도 생겨서 금방 방향하는 사춘기 딸을 모범생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딸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모습에도 변함없이 내 딸이기에 사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딸에게 분명 비타민이 될 것이다.

■ 창조신앙아카데미 수료 간증



/ 홍석기 성도

창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세상에서 창조신앙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사이비 취급을 받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많은 이론들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역사를 전하고 있는 창조과학회의 모습에 많은 도전을 받았다.

온 인류의 생명을 치밀하게 설계하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되기를,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되기를 기도하게 됐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선포가 나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식물을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창조설계를 통해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모태신앙이었던 나는 20대 초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단언했었다.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도 품었던 기억이 떠올랐

다. 아주 어린 시절 노아의 방주를 보며 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생각도 났다. 그 시절에는 어떻게 저런 배를 만들 수 있었는지, 배의 도면은 어땠는지, 크기와 구조가 어떻게 하면 좋았는지 나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다 잠들곤 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노아의 홍수사건을 공부하니 더욱 새로웠다. 노아의 홍수사건이 가져다 준 변화를 보며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창조신앙스쿨 과정에서 이경호 교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공부하고 창조과학 탐사를 다녀오면 어디를 가든 경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층부터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창조역사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더욱 궁금해졌다.

앞으로 창조과학과 관련한 후속과정이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 창조신앙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세례 간증



/ 이승훈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

주님은 나의 위로이자 힘

나는 무신론자였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의 산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일은 인간의 판단과 행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왔다. 그렇게 40년 넘는 시간을 성실하고 꾸준히 살아왔다. 그만큼의 성과도 이루어왔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문득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생겼다. 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던 시기였다. 그 무렵 나는 너무 바쁘게만 달려온 일과 생활의 반복이 지겹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었다.

지난해 새해 첫 날 무작정 온누리교회를 찾아왔다. 2부 예배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연주곡을 들으면서 온 몸에 전율을 느꼈다.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나를 둘러싸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또 예배 마지막에 부른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네 흘로 울던 맘 아시네”라는 찬양가사에서 위안을 얻었다. 내가 힘들고 속으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어있던 마음이 가득 차는 느낌을

받았다.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관심도 없던 하나님과 교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일대일제자양육도 했다. 성경구절을 하나하나 글로 써보고 읽으면서 조금씩이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정말 몰랐던 신의 존재에 대해 배우고 느꼈다. 아직도 가끔은 내가 진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일 때가 있다. 그렇지만 주님께 마음의 위안을 얻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매주 주일 아침에 눈을 뜬다.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믿음과 삶이 좋아서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아직도 가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고, 늦은 밤 잠들기 전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마음속에 새로운 일들을 다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로 새로운 날들을 기대한다. 빛나는 하루의 시작을 열어주시고 평안한 밤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신앙에세이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박철웅 목사
(장애인사역본부장,
고양은평공동체)

지금처럼 ‘전염’이라는 글자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다. 마스크 쓴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나는 사도행전에 나온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불린 사도 바울이 생각났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행 24:5).

여기서 ‘전염병 같은 자’라는 의미는 ‘전염을 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성경은 우리를 복음을 전염시키는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항상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켄달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교회 사역을 하면서 20년 동안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를 했다. 내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꼈지만 그때마다 내가 피했던 도피처는 교회 사역(일)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전도를 매주 실천했다는 켄달 목사님의 고백이 정곡을 찔렀다. 부담은 항상 느끼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전도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된 책이 빌 하이벨스 목사의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다. 이 책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성도의 정체성이 어떻게 전도하는 삶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다.

HP+CP(salt)+CC(light)=MI. MI는 Maximum Impact, 최대효과를 말한다. 복음전파를 통해 구원받는 최대의 효과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HP(high potency; 최고의 잠재력)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한다. 성도 자신이 영혼 구원을 위한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성도가 전도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열심을 내어 성령 충만 할수록 잠재력은 커진다.

둘째 CP, 근접접근(close proximity)이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는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충분히 세상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언급된 소금의 역할은 영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더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소금이 세상에 뿌려져야 하듯이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고 근접관계를 가져야 한다.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CC(clear communication), 복음 메시지에 대한 분명한 전달을 의미한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셨다. 따라서 복음메시지의 중심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며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빛을 정확하게 비쳐줄 수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이다.

전도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나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다.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담만 잔뜩 가진 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나에게 이 책이 작은 돌과구가 되었듯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당분간은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계속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할 것이다. 그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들로 부름 받은 것을 감사하며 또 감사한 만큼 바울과 같이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 바울처럼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한다. 마스크 쓴 사람들의 모습이 복음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권사칼럼

여호와와 열심



유홍봉 권사
(서초B공동체)

사람의 위로는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 끝이 없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는 은혜다.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신

뢰한다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서 갈등할 때가 많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은데 내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싶었다. 20년 전 처음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알기에 두 번째 필사를 하고 싶었지만 시작하기가 어려웠다. 마침 권사회에서 방학동안 시편을 필사하는 기회가 있어 이번 기회에 두 번째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필사에는 성경을 알기 위해 주석을 찾아가며 공부하는데 비중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감사하는 기도에 비중을 두었다. 필사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용서 못할 일이 없고,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큰 부를 얻는 것도 아니지만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게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집중했다. 말씀 따라 기도하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역사하셨다. 나의 신앙과 삶 속에서 있어야 할 것과 나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

시간과 공간을 넘는 성경을 쓰다보면 구약에서의 나는 예수님 시대의 등장인물이 되는 것 같았고, 마치 하나님과 마주앉아 이야기하

는 기분이었다. 선지자들을 통해 애타게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조금만 힘들어도 투정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에도 억울하다며 주님을 힘들게 했던 내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눈면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나를 그냥 놔둘 수 없던 ‘여호와와 열심’이 내 마음을 붙잡았다.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인생을 이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방 들은 것도 잊어버리는 것이 안타깝다. 성공과 안정, 편안을 추구하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의 갈등이 끝이 없다. 유명해지는 것과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비전은 초라하게 죽는 것이다.

말씀 한 절 쓰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성경을 읽게 된다. 반복하며 성경을 읽는 동안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의 잘못을 느낄 때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필사하는 긴 시간 주님과 함께 힘이 행복했기에 그 마음을 나누고 싶다. 필사를 마쳤어도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는 성실함과 깨닫게 하신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어지러운 세상의 간교함을 이기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두 딸에게 한 권씩 어머니의 귀중한 기도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고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긴다.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왕하 19:31).

장로칼럼



엄태진 장로
(경기A공동체)

소금은 짠 맛을 내는 백색의 결정체로 썩는 것을 막고 음식의 맛이 나게 한다. 금처럼 귀하다고 해서 작은 금, 소금(小金)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빛은 어둠을 쫓고 갈 길을 비추고 사물을 바로 볼 수 있게 한다. 참 성도의 사명을 비유적으로 이룬 말로 교훈의 의미가 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빛의 자녀들이다.

흔히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능을 위해 즉각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들이다.

소금의 기능 중에서 음식물의 부패를 막는 것보다 더욱 강조되는 것이 있다. 음식의 맛을 내는 기능이다. 소금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짠 맛이 빠져 맛을 잃게 된다. 음식에 녹아지고 그 존재가 희생 되어질 때 소금 본연의 목적을 다 하는 것이다. 부뚜막 항아리에 보관되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뿌려져 맛을 내는 것이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 ‘소금도 곱팡 난다’는 속담이 삶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다.

초는 자신을 태우며 녹아내릴 때 빛을 발한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욱 절실하고, 더 밝게 빛난다. 세상을 위해 희생하라는 말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숨겨진 등불은 무의미하다. 쓸모가 없어지면 세상에 의해 짓밟힌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감추기 위해 택하지 않으셨다.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택하시고 구원해주셨다.

늘 영적 예배로 드러지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교회 봉사와 전도, 구제봉사, 선교 등 더 많은 희생으로 우리의 행실이 세상에 감화를 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할 근본적인 삶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출 30:35),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고(민 18:19), 빛은 참으로 달콤하며(전 11:7),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막 9:50).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없으리라(눅 11:35).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시 119:115).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에 대한 교훈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길 원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온전한 소원

솔로몬은 겸손하게 소원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는 그 밑바닥에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부유함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재난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릴 때 우리 자신을 속이고, 능력이 많은 것처럼 교만해질 때 우리의 소원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필요한 분별의 지혜

셋째, 솔로몬의 소원의 내용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분별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8~9절).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주의 뜻이 깨달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별의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지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지혜는 단지 오래 살았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학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은 경험을 통해 축적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지만 한순간 교만에 빠지면 지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만이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20대에 받은 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은사가 그랬고, 다니엘의 은사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이 환상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 주어진 분별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에게도 분별의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왜 그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셨습니까?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별의 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직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오직 한 가지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원은 감추어두고 우선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기뻐하셨고, 축복하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네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러면 네 평생에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네가 만약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10~14절).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왕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했던 정적을 제거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필요한 분별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분별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에 잠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 분별의 지혜를 붙잡는 자가 과연 있는지, 제 자신도 돌아보며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순종하려는 소원 속에 분별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흔히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사람을 만들 수도 있지만, 위치가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위치가 자신을 만들고, 안전하게 보장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영혼이 아니라면 그 위치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왕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감사와 자신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분별의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IQ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잠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잠 9:10).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소원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M교회 지체인 B자매(19살)는 어린 시절 언니들을 따라 주일학교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언니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작은 방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B자매의 둘째언니인 G자매는 4개월 전 학생선교사로 옆 나라 K국으로 떠났습니다.

언니를 의지하며 예배에 나오던 B자매는 말이 없고 조용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떠난 언니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녀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B자매의 오빠가 자매에게 무슬림이 될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B자매가 오빠의 말에 순종하지 않자 급기야 무슬림으로 전향하지 않으면 집에서 살 수 없고, 떠나지 않을 경우 죽음을 각오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B자매 아버지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B자매는 2주 동안 다른 곳에 머물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후에 자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두 종교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자매는 단호하게 예수님을 선택했고, 더 나아가 언니가 섬기고 있는 나라로 단기선교를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분노하며 말하기를 “내가 죽을 때까지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야 하며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의 태도에 변화가 없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자 B자매를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B자매는 담담하게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 그리고 일주일 지났을 때 B자매의 어머니가 이곳으로 자매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어머니가 B자매에게 중앙아시아 단기선교와 선교캠프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 14:26).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어리게만 보였던 B자매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자신의 삶과 생명에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한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B자매처럼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의 제자로 성장해 가고 있는 M교회 친구들이 다음 주에 중앙아시아 다른 나라에 갑니다. 자신의 상황

과 환경을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나 열방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 용기를 내었습니다. 가족의 핍박을 주님의 사랑으로 견디고, 어머니의 마음을 바꾼 지혜로운 친구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우소서. 밝은 땅마다 어두움이 떠나가고 주님의 빛이 밝히 비취 죽었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친구들이 2월 중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롯데&김향한 선교사(중앙아시아 E국)

순종의 첫걸음



2020 온누리교회 찬양사역자 모집

◆ 서빙고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담당자
1부 06:50	주찬양	주일 05:20~06:30 08:30~09:50 수요일 19:00	일사: 2월 23일(주일) 오전 8시 30분 장소: 지하 1층 성가대실(식당 맞은편) 곡목: 찬송가 또는 자유곡 1곡(1절만)	박용철 총무 010-5240-6506
	챔버	주일 06:00	일사: 2월 23일(주일) 오전 8시 30분 장소: 지하 1층 성가대실(식당 맞은편) 모집: 현악기, 관악기 자격: 찬송가 또는 자유곡 1곡(1절만)	유원희 팀장 010-3747-5072
2부 09:00	주사랑	주일 07:20~08:30 목요일 19:30~21:30	일사: 2월 27일(목) / 3월 5일(목) 오후 7시 장소: 지하 1층 성가대실(식당 맞은편) 곡목: 찬송가 또는 자유곡 1곡	송찬성 총무 010-2315-6598
3부 11:30	주향한	주일 10:00 화요일 19:30	일사: 2월 23일(주일) 3부 예배 후 / 2월 25일(화) 오후 7시 장소: 지하 1층 성가대실(식당 맞은편) 곡목: 온 맘 다해, 자유곡 찬송가 1곡 / 악보(외워)	최석중 총무 010-9634-8494
4부 13:50	온누리 워십 콰이어	주일 11:20~13:00 주일 15:30~16:30 수요일 20:00	일사: 2월 16일(주일) 오후 3시 30분 장소: 지하 1층 성가대실(식당 맞은편) 곡목: 지정곡(오디션 신청시 공지) 자격: 등록교인, 세례교인, 공동체 소속	이시정 총무 010-4531-7153
새벽 1부 5:20	서빙고 새벽 1부 찬양	월-토 04:50~05:00 (배정된 섬김 요일만 참석 주 2~3회)	전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일사: 신청자와 조정(매일 가능) 장소: 지하 1층 성가대실(식당 맞은편) 곡목: 자유곡 자격: 등록교인, 세례교인, 공동체 소속	이경희 총무 010-7385-0626
새벽 2부 6:30	서빙고 새벽 2부 찬양	월-토 06:00~06:10	전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일사: 신청자와 조정(매일 가능) 장소: 지하 1층 성가대실(식당 맞은편) 곡목: 자유곡 자격: 등록교인, 세례교인, 공동체 소속	이성은 팀장 010-8010-9206

◆ 양재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담당자
1부 06:50	챔버	주일 06:00	자격요건: 전공자, 대학생 이상(오디션 없음)	박정규 성가사 010-8881-0796
2부 09:00	주의빛	주일 07:10 목요일(필요 시)	일사: 2월 10일(주일) 10시 30분 장소: 속소동 지하층 두란노홀 곡목: 자유곡 1곡	김수현 총무 010-8295-9815
	챔버	주일 08:00	일사: 수시로 자격: 찬송가(등록교인과 세례교인), 성가사 면접	문준현 팀장 010-4796-4501
3부 11:30	뮤지컬찬양	주일 14:00~17:00 / 월요일 19:40	일사: 2월 16일(주일) / 2월 23일(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지하 2층 비전홀(식당옆 안쪽) 곡목: 자유곡 1곡	정수진 총무 010-2271-6461
4부 13:50	주기쁨	주일 12:00~13:00 / 15:30~17:30	일사: 2월 16일(주일) 오후 5시 15분 장소: 속소동 지하 1층 두란노홀 곡목: 찬송가 1곡(1절만)	정미경 총무 010-8277-7808
	4부 챔버	주일 13:10(사랑홀) (주 중 개인별 악보 리딩)	일사: 상시(주일) 오후 5시 30분 장소: 속소동 지하 1층 두란노홀 모집: 모든 현악기, 목관, 금관 자격: 전공자	박지희 팀장 010-4786-3004

◆ 부천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담당자
2부 09:00	주손길	주일 07:40~08:40 11:00~12:30	일사: 매 주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지하 1층(시몬홀) 곡목: 찬송가 또는 자유곡 1곡(1절만) * 4주 간 11시 연습 참여 후 찬양팀 합류	김민기 총무 010-8934-2362
3부 11:30	주높임	주일 09:30~11:00 13:30~15:00	일사: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곡목: 자유곡 자격: 일대일 동반자 4주자 이상 수료자	최병욱 총무 010-5146-1197 김영선 (취회계) 010-6655-4428
	주영광 (챔버)	주일 11:00 월요일 20:00	일사: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분당 오케스트라 좌석 모집: 현악기(바이올린, 첼로), 관악기(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금관악기(트럼펫, 튜바) 자격: 전공자, 비전공자(악기별 반을 스케일 가능)	김국경 성가사 010-3675-1812
1부 07:00	찬양인도 밴드(세컨)	주일 06:30	일사: 담당자와 상의 자격: 등록교인, 세례교인, 공동체 소속, 공동체 담당: 교역자 추천서 * 1달 간 연습 참여 후 합류	김주영 전도사 010-3169-3946
2부 09:00	찬양인도 밴드(세컨)	주일 08:00		
3부 11:30	찬양인도	주일 10:30		
4부 14:00	찬양인도 스태프 (조명, 영상)	주일 13:00		
6부 19:00	찬양인도 밴드(세컨)	주일 18:00		
수요 저녁 예배 19:30	찬양인도 밴드(세컨)	수요일 18:00		
새벽 예배 05:20	찬양인도 밴드(세컨)	요일별 05:00	담당자와 상의	

◆ 수원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담당자
1부 07:00	주순종	주일 05:50~06:40 09:00~10:00 장소: 성가대실(4층)	찬양팀 모집 모집: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자격: 등록교인, 세례교인	김태봉 총무 010-7158-8470
2부 09:00	주드림	주일 07:00~08:20 11:00~12:00 장소: 성가대실(4층)	찬양팀 모집 모집: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자격: 등록교인, 세례교인	선우현희 총무 010-9024-8845
	챔버		모집: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전공자)	김종대 팀장 010-6418-7646
3부 11:30	주함께	주일 10:30~11:30 14:00~15:20 장소: 성가대실(4층)	찬양팀 모집 모집: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자격: 등록교인, 세례교인	박현수 총무 010-5626-0034
	챔버	주일 10:30~11:20 장소: 본당(3층)	모집: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자격: 등록교인, 세례교인, 전공자	강소영 성가사 010-8958-3179
4부 14:00	주영광	주일 12:40~13:40 15:30~17:00	찬양팀 모집 모집: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자격: 등록교인, 세례교인	양동국 총무 010-2991-3617
	싱어	주일 13:00~13:40	모집: 싱어	조지환 팀장 010-8290-0772
5부 (HIS청년부) 16:00	밴드	주일 14:30~15:40	모집: 일렉기타, 건반(신디)	임노완 전도사 010-2703-1065
6부 (자녀예배) 19:00	싱어 건반	주일 18:00~18:50	모집: 싱어 모집: 건반(신디, 세컨건반)	고영대 팀장 010-4117-3664

◆ 대전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담당자
2부 09:00	주사랑	주일 07:30~08:30 11:10~12:20	곡목: 찬송가 또는 자유곡 1곡(1절만) * 수시 모집 - 총무에게 신청 시 오디션 시간 개별통보	이희민 총무 010-5401-0140
3부 11:30	주영광	주일 09:00~11:00 토요일 19:30~21:00(절기 칸타타 연습 및 필요 시)	자격: 세례교인으로 20세 이상 남녀(오디션 없음)	채명자 총무 010-5085-0040
4부 14:30	드림러스	주일 13:30~14:15	자격: 세례교인으로 20세 이상 남녀(오디션 없음)	장세영 MC 010-2456-9709

◆ 남양주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담당자
1부 09:00	주찬양	주일 08:00~08:40 / 11:00~12:30 / 목요일 19:00	일사: 수시모집(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5층 성가대실 곡목: 찬송가 또는 자유곡 1곡(1절만)	최정민 총무 010-3352-9757
2부 11:30	주영광	주일 09:00~11:00	일사: 수시모집(주일) 오후 1시 장소: 5층 성가대실 곡목: 찬송가 또는 자유곡 1곡(1절만)	윤정숙 총무 010-5399-2546
	챔버		일사: 수시모집(주일) 오후 1시 장소: 5층 성가대실 모집: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자격: 전공자	

◆ 평택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담당자
2부 11:30	주향기	주일 09:00~11:00 13:00~14:00	일사: 2월 10일(주일) 오전 8시 30분 장소: 지하 1층 성가대실(식당 맞은편) 곡목: 찬송가 또는 자유곡 1곡(1절만)	윤지현 성가사 010-8688-7297

◆ 인천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담당자
1부 09:00	주은혜	주일 07:30~08:40 11:00~12:30	수시 면접(면접 시 개별 연락)	유상재 팀장 010-5724-1839
	챔버	주일 07:30~08:50	모집: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김성미 팀장 010-9431-4073
	예배진행	주일 08:00~08:50	모집: 자막, 방송영상, 예배진행 FD, 안내, 주자, 찬양봉사	김소진 간사 010-3043-0596
2부 11:20	주빌리	주일 09:20~11:10 13:30~15:00	수시 면접(면접 시 개별 연락)	정민호 팀장 010-5254-4176
	챔버	주일 09:30~11:10	모집: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김선경 팀장 010-9741-0023
	예배진행	주일 10:30~11:20	모집: 자막, 방송영상, 예배진행 FD, 안내, 주자, 찬양봉사	김소진 간사 010-3043-0596
3부 13:30	챔버	주일 12:00~13:20	모집: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안상준 팀장 010-3743-0858
	예배진행	주일 12:30~13:20	모집: 자막, 방송영상, 예배진행 FD, 안내, 주자, 찬양봉사	김소진 간사 010-3043-0596
주일 1-3부	찬양인도 (보컬, 밴드)	토요일 16:00~18:00 주일 07:30	수시 면접(면접 시 개별 연락)	안상준 팀장 010-3743-0858
새벽기도회 05:20	찬양인도 예배진행	매일(월~토) 05:00~05:20	모집: 반주, 싱어, 자막, 음향, 홍보기도	하갑천 팀장 010-3534-7751
주일 예배	처치빌더스 예배진행 (연세대) (컨벤시아)	주일 06:30~07:30	예배처소 세트(본당, 차세대) - 예배장비 하차, 운반, 설치	하갑천 팀장 010-3534-7751
		주일 15:00~16:00	예배처소 해체(본당, 차세대) - 예배장비 해체, 운반, 상차	현경일 팀장 010-8318-7450
수요 오전 예배 10:30	찬양인도 예배진행	수요일 09:30~10:30	모집: 싱어, 자막, 음향, 홍보기도, 안내	정혜선 팀장 010-2590-8349
수요 저녁 예배 19:40	찬양인도 예배진행	수요일 18:30~19:30	모집: 싱어, 자막, 음향, 홍보기도, 안내	김학민 팀장 010-4003-7788

◆ 강동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담당자
1부 09:00	주찬양	주일 오전 7:45-8:30 주일 오전 10:30-12:00	모집: 각 파트	안준 팀장 010-5811-3775
	찬양인도	주일 오전 8:30	모집: 싱어, 건반(메인, 세컨) 오디션 일장: 개별 통보	서수민 목사 010-3948-8594
	예배진행	모집: 카메라, 스위처, 음향, 자막 인터뷰 일장: 개별통보		김병조 목사 010-5581-2683
	주기쁨	주일 09:00~10:30 13:10~14:30	모집: 각 파트	이종철 팀장 010-3412-4862
2부 11:30	챔버	주일 10:30	모집: 현악기, 관악기	강수정 팀장 010-4519-6067
	찬양인도	주일 10:50	모집: 싱어, 건반 오디션 일장: 개별통보	서수민 목사 010-3948-8594
	예배진행	모집: 카메라, 스위처, 음향 인터뷰 일장: 개별통보		조종희 간사 010-8718-5900
	프라미스 콰이어	주일 12:00~13:00 주일 18:00~19:00	모집: 각 파트	장정애 팀장 010-8923-6579
3부 14:00	찬양인도	주일 10:30~12:00(밴드) 토요일 14:00~16:30(싱어)	모집: 각 파트 오디션 일장: 개별통보	서수민 목사 010-3948-8594
	예배진행	모집: 카메라, 스위처, FD 인터뷰 일장: 개별통보		조지은 팀장 010-3298-7934
새벽 06:20	찬양인도	해당 요일 06:00	모집: 싱어(주 1회 이상)	김성욱 목사 010-6213-4523
수요오전 여성 10:30	수요 여성 예배	수요일 09:30	모집: 싱어, 음향, 자막 인터뷰 일장: 개별통보	서수민 목사 010-3948-8594
수요저녁 19:30	수요 저녁 예배	수요일 18:50	모집: 싱어, 음향, 자막 인터뷰 일장: 개별통보	김성욱 목사 010-6213-4523

◆ 양지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담당자
1부 09:00	주영광	주일 07:50~08:40 10:30~12:30	오디션 없음	오명규 팀장 010-8878-7673
2부 11:30	워십콰이어	주일 09:50~10:50	장소: 아펜젤러홀 / 오디션 없음	이한수 팀장 010-7621-4337

◆ 도곡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60세 이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서)	담당자
1부 09:00	주경배	주일 06:50~07:50 목요일 19:30~21:20	일사: 매 주일 오전 10시 45분 목요일 오후 7시 15분 장소: 화평홀 자격: 세례교인 모집: 각 파트장 재량(최종 성가사) 면담: 담당자로 또는 팀장	이호영 010-3333-9506
	챔버	주일 07:50~예배 전 목요일 19:30~21:30 (필요 시에만)	일사: 매 주일 10시 30분 장소: 챔버 자리 모집: (우선모집) 바이올린, 바순, 호른, 트럼펫 자격: 전공자 곡목: 자유곡 1곡, 찬송가 전조	김유진 010-6366-1397
2부 11:30	주임재	주일 08:50~11:00 화요일 19:00~21:30	오디션 없음	김영주 총무 010-4166-6595
	챔버	주일 10:50	모집: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자격: 전공자	정현애 팀장 010-8705-5308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O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다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11:30 301호 / ANEWS예배

(영어) 주일 16:00 301호 / 한디아예배 토요일

19: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304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열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홍숙의 집사(010-3003-5910)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자)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서훈주 선교사(010-3245-0710)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진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 3째주 수요일 오전 8:30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를

양 재

O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효섭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릴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4세~고등

부), 11:00(발달장애인 대학부, 청년) 비

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서보희 총부(010-7235-0354)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월 2일 재개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부 천

O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민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민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 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7:1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젊은이예배 오후 14:30

분당, 5부 대학부예배 오후 14:30 누리를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9:00

꿈땅(초1~초6) 오전 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 3부(청

년) 오후 2:00 분당 / 4부(제네) 오후 7:00 분당 /

북향민 주일 11:00 온유홀 / 다문화 토요일 12:00

온유홀

외국어예배

한디아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

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 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예꿈실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11:30 꿈땅실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 천

O32.437.9686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2/2.9.16.23: 컨벤시아(송도동 6-1)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예배/국제예배/사랑부 예배 제

너섬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제너섬 7층(송도

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00/ 11:20/ 13:30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땅1

부 9:00, 파워웨이브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해본

리키즈 오후 13:4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 예

배 오후 2시

강 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 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어) / 11:3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를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벤셀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킨댄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부 천

O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민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민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 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7:1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젊은이예배 오후 14:30

분당, 5부 대학부예배 오후 14:30 누리를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9:00

꿈땅(초1~초6) 오전 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 3부(청

년) 오후 2:00 분당 / 4부(제네) 오후 7:00 분당 /

북향민 주일 11:00 온유홀 / 다문화 토요일 12:00

온유홀

외국어예배

한디아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

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 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예꿈실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11:30 꿈땅실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 천

O32.437.9686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2/2.9.16.23: 컨벤시아(송도동 6-1)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예배/국제예배/사랑부 예배 제

너섬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제너섬 7층(송도

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00/ 11:20/ 13:30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땅1

부 9:00, 파워웨이브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해본

리키즈 오후 13:4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 예

배 오후 2시

강 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 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어) / 11:3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를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벤셀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킨댄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게시판

온누리신문 15

제1282호 | 2020년 2월 16일(주일)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아흔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손신국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니션 7층 •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6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현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동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콤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콤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엘바인 박산우 목사 1-949-261-9100 17200.I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철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창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m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맨큐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8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 일본 • 도쿄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asi Chuu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오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 DAIA- 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9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태만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 (内地大 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aye (Dadigongsi) • 단둥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 SHI KAIFAG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海里 春海巷二巷 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y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shan zhongdianzhan) •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北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Minhangqu Caobailu 1243hao yongweishangwudashu 3lou 388shi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김승환 손신국 서경남
노지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지영 고범석 권용갑
김혜영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훈
김소리 김상수 김승환 김승민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중호 김철희
김태환 김현식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량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만규 박시형 박성온 박성은B
박부열 박성천 박세운 박정중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섭 서 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자
양성민 양정호 이강현 이기복
오은규 원유경 김혜미 유수열
유영순 유영현 유진아 윤경숙
윤석민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윤택
이원진 이상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의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형석 정형준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영정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용준 최형중 한화수 한종희
홍기안 허원희 황종현
◆전도사(전임)
김기락 김진재 안사뮈엘 이우람
신현민 장재원 전병환 정성진

최종현 최대홍 최성규 하성희
하정훈 한은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박이호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규

◆부목사(파트)

김기범 김바울 김병철 김세현

김종영 김정석 김혜경 네트라

한미현 마주부영 민현식 배재원

박씨마 서수민 생애늘 이원준

이승윤 이진이 유승덕 윤지연

임선아 제인랑 최일민 채제미

코리산

◆전도사(파트)

강정모 고원규 권수진 권은영

김근희 김도원 김두원 김도윤

권영현 김승현 김승훈 김성훈

김은하 김은혜 김용태 김원민

김정미 김홍규 김태영 김대주

김종민 김종아 김중호 김철희

김태환 김현식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량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만규 박시형 박성온 박성은B

박부열 박성천 박세운 박정중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섭 서 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자

양성민 양정호 이강현 이기복

오은규 원유경 김혜미 유수열

유영순 유영현 유진아 윤경숙

윤석민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윤택

이원진 이상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의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형석 정형준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영정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용준 최형중 한화수 한종희

홍기안 허원희 황종현

◆전도사(전임)

김기락 김진재 안사뮈엘 이우람

신현민 장재원 전병환 정성진

vasuren Gan-Otgon Donald
Joshua Wabwire

◆사역장로

강기석 강지영 권도원 권영현

고광필 권도원 권영현 권영환

권철준 김경호 김남열 김선태

김광선 김기원 김선래 김수광

김명철 김성순 김성웅 김승영

김성욱 김성우 김승영 김원규

김수영 김용식 김윤성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김하준 김학모 김수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준 김창욱 김철수

김지훈 김진국 김현철 김재호

강영국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진

강영재 강영호 강영진 강영

CGNTV

예배로 세우는 우리집 작은 교회!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매주 주일 저녁 8시 30분 방송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는

- 가정예배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활동과 가정 맞춤형 나눔 방법을 소개합니다
- 가정예배의 인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진행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다시보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 유튜브에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검색 ▶ 구독 ▶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시청자 설문조사

가정예배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2월 16일 ~ 2월 29일

참여방법 CGNTV 홈페이지 참조(www.cgntv.net)

